

안철수, 문재인 지원 파급 효과는

조용하던 대선판 지각변동 이제부터 예측불허 승부로

새누리 "찾잔 속 태풍"

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6일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함에 따라 1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 후보는 지난달 23일 안 전 후보의 후보직 사퇴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이는 조사가 많았지만 결과는 이날 안 전 후보의 지원 의지 표명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.

일단 전문가를 포함해 정치권에서는 안 전 후보의 지원이 문 후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. '박근혜 상층세'에 제동이 걸리고 '문재인 반등'을 이끌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.

문제는 효과 정도다. 여론조사기관 및 정치 전문가들은 안 전 후보가 전폭 지원에 나설 경우 지지율에서 2~5%포인트 정도 변동이 가능하다는

견해를 내놓고 있다.

신 울 명지대 교수는 "안 전 후보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문 후보의 지지율이 3~4%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다"며 "이 정도라면 대선판을 흔들 만큼 큰 변수가 될 수 있다"고 전망했다.

실제로 헤럴드경제와 리얼미터가 이날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, 박 후보(48.8%)가 문 후보(44.0%)를 4.8%포인트 앞선 상황에서 안 전 후보가 문 후보를 적극 지원할 경우 두 후보의 지지율은 박 후보 48.2%, 문 후보 46.6%인 것으로 나타났다. 두 후보의 격차가 1.6%포인트까지 줄었다. 특히 안 전 후보가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. 안 전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는 지원활동을 벌이고 문 후보와 함께 공동유세에 나설 경우 시너지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.

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"단기적으로 문 후보가 지지율을 2~3%포인트 회복할 것"이라며 "앞으로 안 전 후보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"고 전망했다.

그러나 안 전 후보의 지원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

다. 안 전 후보의 지원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인 것이다.

새누리당 권영진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"안 전 후보가 전면 지원하든 안 하든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"고 말했다. 이는 안 전 후보가 지난달 23일 사퇴하면서 이미 정권교체를 강조했고, 문 후보에 대한 성원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 쪽으로 지지를 옮겨가지 않은 지지자들이 이번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.

새누리당 한광옥 국민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은 "전체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폭발력은 이미 상실했다"고 평가했다.

특히 문 후보와 민주당이 안 전 후보의 전폭 지원에 호응하는 후속 조치, 즉 쇄신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'안철수 변수'는 찾잔 속 태풍으로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.

또 안 후보의 지원 외에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공방 격화, 대선 투표를, 네거티브 공방 등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일 변수로 꼽히고 있어 대선 승부를 예측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

“정권교체 합시다”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정동 한 음식점에서 단독회동을 가진 뒤 취재진들에게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. /연합사

안철수, 문재인 지원 어떻게

손잡고 전국 순회유세·TV 찬조연설도

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의 문재인 민주당 후보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.

현재로서는 개인 자격으로 나서게 유력하다. 문 후보 측 선대위 직책을

맡는 등의 직접적 결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.

안 전 후보가 사퇴하면서 '백의종군'을 언급한 데다, 자신이 '새 정치'의 표상을 가져가기 위해서 문 후보

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분석이다. 이 경우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는 범위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 등 거리 유세와 TV, 라디오 찬조연설 등이 있다. 문 후보 측이 안 전 후보를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가능하다. 따라서 현재로서는 안 전 후보가 6일 문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굳힌 만큼 문 후보의 유세 현장에 직접 합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. 실제 안 후보는 7일 부산에서 문 후보와 첫 유세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 이는 연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층의 표심을 단시간 내에 끌어오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.

한편, 안 전 후보 측 유인영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오늘(안 전 후보)일정은 따로 없다. 내일 일정을 보면 향후(지원 유세)흐름을 알 수 있지 않겠나"며 "문 후보와 함께하든 별개로 하든 지원방식은 다양하다. (캠프에)나와 있는 사람들과 상의한 뒤 후보가 좋다고 하면 민주당과 조율해 결정할 것"이라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.

/이종행기자 golee@kwangju.co.kr



6일 무등산 정상에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다. 무등산은 이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립공원 지정 심의를 통과했다. 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사실상 확정

국비 972억 투입 공원시설 등 정비

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이 확정되면 편입부지 매입을 비롯한 관리 주체 변경 등 절차를 밟게 된다. 또 관리면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인력은 물론 관리비도 증가한다. 공원보호를 위해 야간산행 금지 등 탐방조건은 가다로워진다.

◇국립공원 승격 후 절차 및 인력 배치=오는 17일 환경부의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국립공원 승격이 최종 결정되면 우선 내년도 예산에 160억원의 국비가 배정된다. 이 예산으로 편

입부지 매입절차 등을 밟게 된다. 또 훼손지 복구와 탐방로 정비, 공원시설 설치 등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총 97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. 관리주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.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게 원칙이지만, 무등산이 광주도시에 위치해 있는데다 지역민의 무한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. 한라산의 경우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

제주도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.

◇관리면적 및 인력=무등산국립공원 면적도 기존 도립공원때 30.23km보다 2.6배 넓어진 총 78.510km로 늘어난다. 지역별로는 광주 49.087km(62.5%), 전남 29.423km(37.5%)다. 이면적은 향후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. 용두산구는 공원자연환경지구가 67.66km(82.21%)로, 국립공원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▲공원자연보호지구 13.04km(15.85%) ▲중심사·약사암·규봉암·원효사 등 공원문화유

산지구 0.68km(0.82%) ▲배재·화암·평촌마을 등 공원마을지구 0.65km(0.79%) ▲중심사 및 원효사지구 등 집단시설지구 0.27km(0.33%)로 구성돼 있다. 또 주요 탐방로 15개 구간을 신설해 기존 16개였던 주요 탐방로가 총 31개로 늘어나게 되며, 3곳의 주요 출입구가 12개로 늘어나게 된다. 관리인력은 현 5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고, 관리인력도 연 50억원에서 150억원 규모로 증가한다.

◇입산객 탐방 제한 강화=과거 도립공원보다 자연보호 기능이 강화된다.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이전에 비해 입산 통제 등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. 국립공원 내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행위를 어기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. /박진표기자lucky@kwangju.co.kr

2013 웃음으로 시작하는 새해,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께 행복한 웃음을 선물합니다. 개그에 개그를 더한다~면 웃음 폭발^^

2013 한국의 코미디는 변화하고 있다!!

K본부와 S본부의 유명 개그인들이 광주에 몰려온다!

방송의 간판 개그 프로그램! 유명 개그 연기자 한 자리에 모여 보여드리는 TV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재미! 현장에서 흠뻑 느껴보십시오

2013. 1. 13(일) 오후 3시, 6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
주최_ 광주일보사 제작_ (주)이엔티팩토리 구입처_ 티켓마루·인터파크 예매문의 062) 220-0541

·티켓가_ VIP석 77,000원, R석 55,000원, S석 33,000원
·할인_ 단체 20명이상 10%, 50명이상 20% 할인 (단체구입시 062-220-0541로 연락바랍니다.)

※ 출연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빛의 만평 - 김종두

정지9단 행세 다하고 있다